

 인천광역시		보 도 자 료		<div>경 추</div> <div>재외동포청 개청</div>	
		배포일자	2023년 6월 16일 (금) 총 2매		
담당 부서	수질하천과	담 당 자	• 하천환경팀장 김경희 ☎440-3621 • 담당자 김지은 ☎440-3626		
사진(이미지)	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		참고자료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
보 도 시 점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

인천시,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꼼꼼 점검
- 16일, 강화 교산천·동락천 등 풍수해대비 공사현장 점검 -

인천시가 여름철 풍수해를 대비해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점검에 나섰다.

인천광역시(시장 유정복)는 16일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강화 교산천과 동락천의 공사현장을 찾아 공사 진행사항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.

강화에는 인천시가 관리하는 지방하천 30개 중 14개가 위치하고 있으며 교산천과 동락천은 각각 2015년과 2014년부터 제방축제 및 교량, 보, 호안, 갑문 설치 등 하천 미개수에 따른 통수단면부족부분에 대한 개선사업을 추진 중이다.

강화는 다른 지역 하천과 달리 바로 바다로 연결되는 하천이다 보니 공사 여건이 어렵고 피해가 날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대비가 필요하다.

교산천과 동락천을 찾은 점검팀은 이날 개선공사 진행사항을 파악하고, 이후 공사가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격려했다. 또한 여름철 풍수해 피해가 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를 주문했다.

김인수 시 환경국장은 “강화 수해상습지 공사현장 점검을 시작으로 여름철 풍수해피해 대비에 철저를 기하고자 현장중심으로 종합건설본부 및 군·구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하천 관리에 만전을 기해나가겠다”고 의지를 밝혔다.

아울러 지속적인 하천, 6대힐링명소 실무 TF를 통해 국비 등 예산확보와 사업추진을 계획대로 추진하여 맑은 생명이 살아 숨쉬는 녹색환경도시를 완성할 계획이다.

